



기술표준원 news plus+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

기술표준원은한국규제학회와함께 국제기구및 주요국의제품안전정책최신동향, 국제공통안전 규정 제정 논의를위한 '국제제품안전워크숍'을 국내외제품안전관련 전문가 2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5월 18일 한국언론재단(그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개최하였다.

제1부국제기구세션에서는,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의장및 국제소비자제품안전회의(ICPSC)* 의장이참석, 세계시장에서제품안전성 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및 국제표준적용확대

등국제동향을발표하였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김재욱회장의장직을맡고 있는 ISO 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의 리콜표준 및 사업자제품안전가이드제정을위한 국제표준화동향을소비자시민모임의문은숙기획처장이소개하였다.

아울러, 제2부주요국세션에서는유럽·캐나다·일본·한국등 4개국정부관계자가자국제품안전관리제도를설명하고국제협력활동 등을 발표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숍이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각국의 안전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며 5월 17일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와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과의 제품안전 관리양자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EP인증 제품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은 신제품(NEP)인증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 사후관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우선월 21일부터 217개 인증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사후관리의 배경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NEP인증 신제품을 20% 이상의 무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부터는 조달청에서 그간 조달 우수제품에 한해 인정되던 다수 공급자 물품 계약 적격성 평가면제 대상이 NEP인증, GR인증 등 신기술·친환경제품으로 확대되어 NEP인증 제품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표준원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사후관리조사반을 편성하여 NEP인증 신제품에 대한 기술성, 품질·성능 및 품질보증시스템 등이 최초 인증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제품과 이의 신청을 받거나 품질적 하로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인증 제품에 대한 처분 기준도 신규 제정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 권고를 하는 반면, 중대한 위반 시에는 인증 취소 명령으로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고 및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를 병행하여 불량 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인증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NEP인증 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회장: 이병설, 일성이앤지 대표)」가 5월 7일 전면 개편됨으로써 협회 차원에서 인증기업에 대한 관로 지원 및 홍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 사후관리에도 인증협회 소속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인증기업들 자체적으로 인증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EP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6년 상반기 실적은 '05년 대비 24.9% 증가한 697.9억원이다.

기술표준원, 건국대학교와 MOU 체결
 기술표준원 5월 16일 건국대학교(총장오명)와인



기술표준정보의공동 활용 및 의류패션분야의기술 개발등 관련업무전반에대한상호교류협력을위해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두기관은이번MOU체결을통해전국남녀0~90세 2만여명대상으로인체치수및 인체형상을측정한 기술표준원의인체표준정보를활용하여소비자 중심의맞춤주문형패션의류및 디지털의류상용화 등 첨단패션의류기술개발촉진을위해서노력을기울이기로했다.

기술표준원은03년도부터SizeKorea라는이름으로 산업제품및 생활공간설계시 필요한인체표준정보보급을위해3차원스캐너등의최첨단장비를 이용하여한국인에대한인체치수및 형상측정사업을추진해왔으며, 건국대학교는06년 산업자원부 등의지원으로 i-Fashion 의류기술센터를 설립하여기존의류패션기술에가상현실, RFID 등최신 IT기술을접목시키려는구를해왔다.

기술표준원은이번MOU 체결로국내 의류패션산업의첨단화및 고부가가치화와패레·영세봉제업체의 경쟁력지원등의기반구축에도도움이될 것으로기대한다.

로봇혁신제품 발굴지원제도 설명회

기술표준원 은로봇신제품이조기에서업화될수 있도록기존에추진해오던 '신기술제품발굴지원제도(LABCON Plan)'를 로봇분야로확대하여맞춤형 기술지원을하고신제품(NeP)인증을유도하여시장창출과판로개척을지원키로하였다.

- + LABCON(from LABoratory to CONtainership) 지원제도 :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증·판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
- + 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탁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이는로봇기술의상용화를촉진하고신기술제품에 대해수출경쟁력있는세계적인상품으로지원하기 위한전략으로서, 로봇종합지원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산업기술시험원등 로봇관련전문기관과협력하여 '로봇혁신제품발굴지원단을 구성하고, 우선 판로의개척이어려운중소기업을대상으로세계시장선점이가능한10개의로봇제품을시범적으로선정하여지원할예정이다.

이를 위해 '로봇혁신제품발굴지원제도' 설명회 '(07.5.18, 금)를개최하였으며, 기업별로기술에 대한멘토링, 시험평가, 인증 전주기적상품화지

원을추진할계획이다.

- * 로봇혁신제품 발굴지원제도' 설명회(1차) 및 개별 상담 실시
 - 일시 : 2007. 5. 18(금) 10:00 ~12:00,
 - 장소 : 부천테크노파크 4동 로봇산업연구단지 514호 회의실

신제품(NeP) 인증을받은공기관에서는로봇제품구매시20%이상의무구매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정부조달시장에서도적성평가면제혜택을받도록되어있어 우선적으로공공분야부터로봇도입의활성화가기대되며, 전시회출품비보조, 이행보증우대, 금융기환출우대등의지원혜택을받을수있어기업의판로개척에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기술표준원은이번시행한로봇혁신제품발굴지원제도가로봇제품에대해 인증을통한소비자구매촉진을유도하고나아가우수한로봇의세계시장선점을위한추진력을제공할것으로기대하며, 국내기술수준이높아조기상용화가가능하고공공분야수요가예측되는안내로봇, 교육로봇, 소방용구조로봇등을우선발굴지원할계획이다.



승강기 문에 대한 안전기준 대폭 강화

기술표준원은최근승강기문이이탈되면서추락에 의한인명사고가여러차례 발생됨에따라 승강기문이탈에 의한추락사고방지를위하여승강기문에 대한안전기준을대폭강화하였다.

- + 1) 대구 황실호텔 승강기 추락사고(07.1.6) : 취객의 몸싸움에 의한 추락(2명 사망)
- 2) 길음동 아파트 승강기 추락사고(07.2.20) : 전동스쿠터 충돌(2명 부상)
- 3) 의정부 상가 승강기 추락사고(07.2.25) : 취객의 충돌에 의한 추락 (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에입안예고한 승강기문 안전기준은실제충돌을감안하여중학생2인이충돌하여부딪혔을때(450J) 견디도록하였으며일정한한유예기간부여후신규로설치되는승강기부터적용된다.

- * 07.1월부터 승강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인라인스케이트 충돌, 자전거 충돌 등 다양한 충돌상황별 문 이탈여부 확인 등의 재현시험을 통하여 승강기 문의 강도를 산출하였으며 소비자단체 및 업체 등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2인이 장난치다 추락하는 정도의 사고예방에 대하여 공감
 - + 안전사고 방지 및 제조업체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3학년 평균 몸무게 63.4kg(size korea 통계), 평균 도약속도(도약거리가 약 3~5m인 경우) 2.65m/s(한국체육학회지 자료인용)에 견디는 힘의 크기(450J)로 결정
 - + 1Joule :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만큼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

현재 승강기문에 대한안전기준은“ 견고하겠지

되어야한다'고 서술적으로 규정되어있어 이를 수치화하여 실제 충격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본의 경우 정량화된 규정이 없으며, 유럽도 실제 충격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기존 설치문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추락방지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노후한 승강기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승강기 일체 점검 등을 통하여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 추락방지 보조장치 : 문 이탈에 의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승강기 문 하단부에 보강대 설치 등의 장치
- 국내 설치된 대표적 승강기 문의 경우 기대는 행위 등의 일반적인 이용환경에서는 문이 이탈되지 않으나, 전동스쿠터로 충돌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환경에서는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

기술표준원은 실제 충격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이번 승강기문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ISO TC178)할 예정이며, 아울러 그간 발생한 동일· 유사사고에 대한 유형분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국제표준화 회의

우리나라 안전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향후 전세계 도로를 질주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최초로 열리는 자동차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의(5.14~18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대회)에서 자동차 충돌시험방법과 보행자 충돌 안전 평가기술을 제안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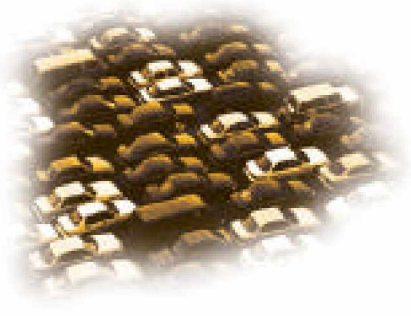
- + 자동차 충돌시험 및 승객 안전 보호장치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 TC22/SC10 & SC12)
 - ISO TC22/SC10 : 충돌 가상시험, 보행자 안전 등 충돌시험 분야 표준 개발
 - ISO TC22/SC12 : 어린이 보호장치, 에어백 등 승객 보호 안전장치 분야 표준 개발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유럽·미국 등 자동차 안전 선진국에서 주로 개최되던 회의를 국내 처음으로 유치했으며, 자동차 강국인 독일·일본·미국을 비롯한 8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어백과 승차자의 상호 연관성 평가방법, 어린이 보호장치의 측면 충돌 평가방법, 충돌시 목·다리 등 신체상해 기준 등의 국제표준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제어식(ECV) 차량 충돌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대 자동차 정면 충돌 시험방법 등 3건의 기술 및 현황을 발표하였다.

- 전자제어식(ECV) 차량 충돌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차 대 자동차정면충돌시험방법은 보험개발원박인승팀장이, 보행자충돌시험및 안전성에 대한 국내연구및 법제화동향소개와 보행자충돌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를윤영한교수(한국기술교육대)가제안하였다. 또, ISO에서규정하고있는 에어백전개시비정상위치에있는승객과의간섭에 관한시험법의 국내 활용도및 실태를최형연



교수(호이대)가발표하였다.

2008 ISO/COPOLCO 총회 서울 유치

이제 우리나라가소비자를위한 국제 표준정책을 주도할수있는게기가마련되었다.

지난 5월 23~25일사이브라질(바이아주살바도르시)에서개최된제29차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에서우리대표단이차기총회를우리나라에유치하기위해 적극 노력한결과, 내년5월 서울에서개최키 최종확정되었다.

-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156개국 참여)
- * COPOLCO(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ISO 산하 국제소비자정책위원회)

그간 ISO 기술위원회회의는우리나라에서여러번 개최한적이있으나, ISO의정책위원회총회를한국

에서개최하게된 것은이번이처음이다.

ISO/COPOLCO는 ISO의 3대 정책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개도국정책위원회)의 하나로1978년에 출범하여현재 세계 99개국이 회원국으로활동하고있으며, 소비자관점에서제품 안전, 고객만족경영, 사회적책임등 국제 사회에 영향이큰표준정책을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2002년부터정회원국으로가입하여활동하여왔으며, 2006년ISO/COPOLCO 의장국(의장: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재욱회장)이되어현재그 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해온 바 있으며, 내년ISO/COPOLCO 총회까지서울에서개최하게되면 차기 표준화이슈를우리가주도적으로제안할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로서는국제소비자표준정책결정에 발언권과영향력이한층더강화될 전망이다.

특히내년ISO/COPOLCO 총회는50여 개국의국제기구· 정부대표및비자· 표준환문개50여명이 참석할예정이며, ISO에서COPOLCO 출범30주년을맞이하여소비자관점에서소비자이익 창출을위한새로운국제표준개발에힘쓸계획이다.

이번 ISO/COPOLCO 총회에서는전자상거래예고 객만족개념이도입된국제표준개발을ISO에 제안하였으며, 또한 '공정무역(fair trade)'에 대한국제 워크숍을개최하여국제표준추진을위한국제적인 공감대를확산한바있다.

내년 ISO/COPOLCO 총회를서울에서개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소비자전략을국제소비자전문가들에 소개하고, 또한세계주요 국가들의소비자 표준정책을우리기업에 직접접전할수 있는 기회를갖게 되어 국가교역증진에도도움이될것으

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향후 국제소비자표준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계가개발한기술들이국제표준으로 채택될수 있도록, ISO· IEC 등의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제정 작업을주도하는기술위원회 의장및 간사수임도더욱확대키로노력하는등 국제표준을선점하기위한다각적인국제표준화활동



테러방지용 RFID 국제표준 제정 임박

을전개할계획이다.

핵물질, 생화학무기등 테러용위험물질의국가간 이동을방지하는e-Seal(전자봉인)에대한국제표준 의제정이완료단계에접어들었다.

e-Seal(전자봉인)이란, 무선인식(RFID)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에서 자동으로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 봉인장치를 말한다.

911 테러 이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2001년 부터e-Seal에 대한표준을개발하여왔으며, 5월7 일 부산에서개최된「화물컨테이너국제표준화회의 (ISO/TC104)에서 화물컨테이너에무선인식기술 을 적용한테러방지표준인e-Seal에 대한최종검토

를하게된다고기술표준원이발표하였다.

이번에회의에서는전자봉인데이터를통신매체와 조화할수 있는 신호로바꾸는물리계층(Physical layer)에 대한 국제표준안을결정할 것으로 전망 된다.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ISO/TC 104(화물컨테이너) : 컨테이너의 크기, 시험방법 및 RFID 적용 등과 관련된 국제표준을 개발 및 심의하여 제정하는 기술위원회

향후미국은화물컨테이너의보안강화를위하여자국 항만에들어오는컨테이너에전자봉인의사용을 법제화하고, 점진적으로세계 각국이전자봉인장 착을의무화할 것으로예상되어, 이번회의결과가 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높아관련업체들의비상한관심을받고있다.

특히, 우리나라가전국항만에RFID를 적용하는i-포트사업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이번회의가국내에 유치되어, 국제표준이이번 회의에서결정될 경우국내기업들의RFID 실용화에큰 도움이될 것으로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전자봉인에대한국제표준도입을지속적으로검토해왔으며, 국제표준이결정될경우 즉각국가표준으로도입할계획이다.

전자봉인관련 국제표준원ISO 18185 시리즈이며, 이번 회의에서최종안이결정되면올해내에 국제 표준으로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산업에조기 실용화를위하여국가표준도올 해안에 제정할계획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이번 총회에 참석 한국계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물류RFID 표준 및 산업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5.11(금))

세미나 내용은 “전자봉인 및 국제표준화 현황”, “전자봉인 적용 사례”, “부산신항만의 물류RFID 시범사업 현황” 등이다.

ISO/TC195(건설기계) 국제표준화 회의

기술표준원은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건설기계 분야의 ISO 국제표준화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5월 9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 개최하였다.

-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4위의 건설기계 생산국이지만 세계 최대의 건설기계 생산국인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 건설기계 세계시장(990억불)의 5%인 50억불을 생산 그중 80%(41억불)를 해외에 수출,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크레인, 도저, 로우더 등 일부 건설기계는 4억6천만불을 수입

- ※ 수출상위국가 : 1위 (미국 : 350억불)
- 2위 (일본 : 250억불)
- 3위 (유럽 : 230억불)
- 4위 (한국 : 50억불)

이번 회의는 세계적인 건설기계 메이커인 미국의 CATERPILLAR, 일본의 KOMATSU, 네덜란드의 CNH, 스웨덴의 VOLVO사 등의 중진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최근 국내·외 건설기계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환경관련 기술, 메카트로닉스 기술, 쾌적성 및 편의성 제고 기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저배기가스·저소음 엔진 개발,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등이며,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는 GPS를 이용한 장비 관리 기술, 무인운전을 위한 로봇화 기술 등으로 이와 관련된 한국계 표준 제정 계획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의 건설기계 장비 기술 수준 등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홍보와 병행하여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콘크리트 펌프카의 타설 높이가 기존 32m→58m까지 작업 가능 기술 등, 전진중공업 조재규 전무 발표)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 반영하고 우리 개발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노력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플랜지 분야 KS가 국제표준으로

플랜지에 있어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사용되었던 KS 규격의 호칭방식(압력기호)이 ISO 규격으로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KS 규격으로 생산된 플랜지를 그대로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동안 국내 플랜지 제조업체들은 국내용으로 KS 제품을 생산하고, 세계시장 진출 시에는 국제표준(ISO), 지역국가, 단체규격 등으로 별도 설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ISO 국제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랜지 표준은 호칭압력표기방식에 있어 유럽의 PN이었으며, 이밖에 미국에서는 Class, 한국(일본포함)은 K로 사용하고 있었다.

* 플랜지는 증기, 공기, 가스, 물, 기름 등이 흐르는 배관에서 관(管)과 관, 관과 밸브 및 기계부분을 결합할 때 사용되는 제품으로 상수도, 발전, 가스, 조선 등 산업 전반에서 설비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 압력표기방식 : PN(Nominal Pressure), Class (등급), K(Kgf/cm²)

지난 5월 2일(수) 제주에서 개최된 플랜지 분야(ISO/TC5/SC10) 국제표준화회의에서 KS 표시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칭압력방식이 국제표준(ISO)으로 포함하도록 합의되었다.

이번 규격안은 위원회 초안(CD, Committee Draft)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호칭압력 추가 개정 의견을 제시하여 규격(안)(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단계에 반영되어, 투표를 거쳐 이번에 합

의 통과되었으며, 최종규격(안)(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이 회원국 회람(2개월)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국제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지속적으로 분야 국내 KS 표준이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별 사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u-시티", 세계화 시동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시티" 모델을 선진국보다 앞서 세계무대에 내놓기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지능형교통시스템 분과(TC204)에 "u-시티 교통시스템 국제표준 개발"을 제안하였다.

* ISO의 지능형교통시스템 분과 : 차량간통신, 차량 경고시스템 등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분과임. 금번 u-시티 관련 제안은 4월말 미국 렉싱턴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정해짐(15개국 100여명 참석).

ISO TC204가 한국의제안을받아들여국제표준화 방안수립을위한 u-시티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기로함으로써사실상한국주도로최초의u-시티국제표준화질이열린셈이다.

※ 한국의 관련 기술이 선진국보다 한발 앞서 국제표준으로 되면, 우리의 u-시티 기술과 경험을 세계가 인정하게 되어, 향후, "u-플랜트" 형태의 u-시티 건설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은ISO의“지리정보분과에서u-시티응용기술인“u-지리정보(ub-GI)”국제표준작업반창설도 주도하고있어, 이번u-시티교통분야의 태스크포스”주도권까지되면, u-시티건설분야의국제표준화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고평가할수있다.

기술표준원은이번 ISO 지능형교통시스템분과회의에 한국대표단6명(단장: 아주대 이승환)을과견하여, u-시티표준화논의 외에도, 차세대교통시스템의시장을주도할수있는우리기술종의표준(안)을제안하는성과를올렸다.

- ① 교통신호 제어장치 무선 프로토콜 (아주대 이승환)
- ② 신호위반 경고시스템 (교통연구원 문영준)
- ③ 커브속도 경고시스템 (자동차부품연구원 류시복)
- ④ ITS 표준 개발지침 권고사항 (한국표준협회 최동근)

기술표준원은금번 u-시티 국제표준화이니셔티브 확보를계기로금년 중 u-교통시스템, u-지리정보,

u-로지스틱, u-네트워킹등 u-시티서비스별표준화 정책을포괄하는“u-시티 국제·국가표준화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한국주도의u-시티 국제표준화를전략적으로지원해나갈계획이다.



페인트 및 바니시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기술표준원 5월 29일 부터31일까지제주신라호텔에서국제 페인트전문가들이참석하는제33회 페인트및 바니시분야 국제표준화위원회(SO/TC35)를개최하였다.

페인트분야의국제표준을제정하여운영하는이 기술위원회는SC2(안료및 희석제) 등5개의소속분과위원회와기술적내용을검토하는26개의작업그룹(WG)이 있으며, 우리나라도99년 부터 미국·독일·일본·영국등 23개 정회원국과함께활발히 활동하고있는분야이다.

금번총회에서는최근각국에서환경규제기확대되고 있는VOC(휘발성유기화합물)함량규제현황과 평가방법에대한 표준화를논의하였으며, 교각 등 철강재의방청방법, 성능평가를위한시험조건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함께, 앞으로 페인트분야 국제표준화방향, 회원국간의 교류 강화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국내 페인트산업은 국외적으로는 경쟁업체의 기업간 합병을 통한 다국적기업화, 국내적으로는 원부재료의 가격 상승과 실내 공기질, 수도권 대기질 등과 관련된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국제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표준화 및 신기술 교류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여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이 수월해지고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생산 기술의 습득으로 페인트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회의와 함께 미국, 유럽주도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제3차 아시아표준화협력회의의 도개회되었다.

금번 회의는 한·중·일 대표단이 모여 페인트분야에 대한 표준화 연구의 협력, 국제규격의 공동제안, 선진기술정보의 공유 등과 함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민간 참여의 적극 유도 및 전문분야별 대응체계의 마련 등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국내 페인트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기술표준 2007. 6

